뉴스, 신문 등을 보면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통념화되었었지만 근래에는 모든 문제를 사회탓으로 돌려 방화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고통으로 몰아넣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역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한 남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케 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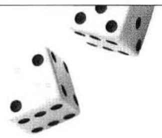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나는 개개인의 의지가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늘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200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운명》이 그것이다.《운명》은 헝가리 작가 임레 케르테스(73)가 소년기 때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체험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주인공 죄르지는 친구들과 함께 아우슈비츠와 부헨발트를 거쳐 짜이츠라는 수용소에 수감된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고통과 절망만을 가져다 줄만도 하지만 그는 그런 생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의 방식에 적응해 간다. 전쟁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끔찍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과거는 잊을 수도, 단절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러한 과거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다른 전쟁관련 소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전쟁관련 소설들이 수용소 생활의 고통이나 집단학살을 그리고 있지만 이 소설은 그같은 만행을 그리기보다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희망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역사가 휘두른 횡포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희망을 그리고 있기에 이 책이 더욱 값진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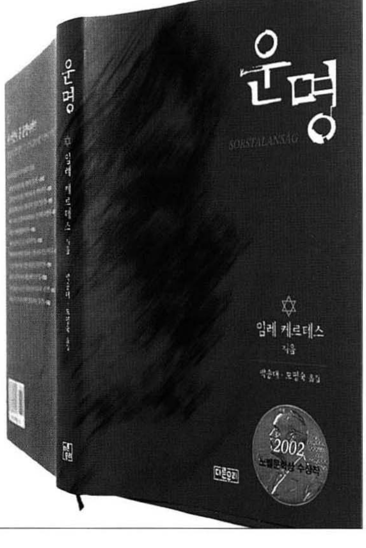
주인공 죄르지는 힘든 일을 하고 따뜻한 수프를 먹는 순간이나 다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 책은 끔찍한 과거의 전쟁도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만난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말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말하려 하는 것은 '운명은 없다'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작가는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많은 지금의 혼란스런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뿌리가 될 것이리라 믿는다.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진짜 운명을 만든다

서정인_주부



《운명》| 임레 케르테스 지음 | 모명숙, 박종대 옮김 | 다른우리 | 315쪽 | 값 9,500원